

지석영의 『신학신설』(1891)에서 근대적 주거 문제

김명선^{1*}

The Issue of Modern Dwelling in *Sinhaksinseol*(新學新說: New Knowledge New Theory) by Ji, Syok-young

Myungsun Kim^{1*}

요 약 지석영이 1891년 저술한 『신학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개인위생서로 주거위생에 관해 내용도 담고 있다. 주거관련 내용은 ‘광(빛),’ ‘공기,’ ‘지구(地氣)’ 항에서 등장하는데, 주거의 일조 및 채광, 통풍 및 환기, 주거지의 건조하고 신선한 공기와 토질 등이다. 근대적 위생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1891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생’ 개념에 의지하여 서술되었지만, 빛, 공기, 물, 열 등 주거위생에 중요한 환경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건조, 청결, 토질 등 주거지의 위생조건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 책은 18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신문, 잡지, 학회지, 교과용도서 등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근대적 주거담론의 기본적인 인식구조와 서술방식을 선취했으며, 근대적 주거의 필수조건으로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일반인들을 계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bstract Ji, Syok-young wrote a book named *Sinhaksinseol*(新學新說) in 1891, one of the first hygiene books in Korea. There were the conditions of modern housing like lighting, ventilation and dry and fresh air of a housing site in the contents of the book. Because the book was written when the modern hygiene theory had just been accepted, traditional concept of 'Yangseong(養生),' but it dealt the main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ygienic housing at first, which makes it the leader of modern housing discourses through the newspapers, magazines, academic journals or textbooks from 1890s mid to 1910.

Key Words : Ji, Syok-young, Modern Dwelling, Hygiene, Light, Ventilation, Air

1. 서론

한말(1876~1910) 개인의 건강은 근대 국가의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 요소로 인식되었다.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의복과 함께 주거를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즉, 주거위생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위생 담론도 도입되었다. 최초로 도입된 것은 개화파 관료들의 개인저술을 통해서였다.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1888),¹⁾ 지석영의 『신학신설』(1891),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이 대표적이다. 이들 개인저술은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초반에 저술되거나 출판된 것으로 1890년대 중반 이후 신문, 학회지, 교과용도

서²⁾ 등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주거위생 담론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을 뿐 아니라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을 구분하고 개인위생의 한 항목으로 주거위생을 다루는 한말 주거위생 담론의 구조를 선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1) 이 상소문은 ‘박영효 건백서(朴泳孝建白書),’ ‘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 등으로도 불리지만, 박영효가 1885년 고종에게 올린 편지(‘上書’)와 구별하고 일본 명치시대 천황에게 올리는 문서를 뜻하는 ‘건백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보아 ‘1888년 상소문’으로 부른다. 「1888년 상소문」의 판본과 명칭에 대해서는 전봉덕,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8, 1978, 187-190면 참조.

2) 한말에는 각 학교 수업에 사용된 교과서를 ‘교과용도서’로 불렀다.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갑오년(1894) 개혁 때 학무아문의 편집국에서 각급 학교의 수업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편찬, 외국 서적의 번역, 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가를 담당하는 규정이 생기면서이다. 일제강점 초기에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 김명선(rosaria@sunmoon.ac.kr)

하다.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과 유길준의 『서유전문』(1895)의 내용은 지금까지 건축사, 의학사, 과학사 분야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지만,³⁾ 지식영의 『신학신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 책의 저술동기와 책의 구성, 주거관련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결론에서 한국 근대주거사에서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2. 지식영의 『신학신설』(1891)



[그림 1] 지석영

지석영(1855~1935)은 1878년 부산의 일본해군병원 ‘제생병원’에서 종두법을 배우고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위생국에서 우두법을 배웠고 귀국 후 일본공사관 의관(醫官) 마에다 가요노리(前田清則)로부터 서양의학학을 배웠다. 이후 사람들에게 종두법과 우두법을 가르치고 『

우두신설(牛痘新說)』(1885)을 쓰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접종법을 보급하다가, 1887년부터 1892년까지 5년간 전라도 신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1891년 유배지에 있으면서 『신학신설』을 필사본으로 완성하였다.

그는 서론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사람들이 모두 “위생의 이치”에 밝게 되어 “강녕”하고 약을 쓰거나 의원을 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고 이해하며 실천하기 쉽도록 순한글로 쓰는 배려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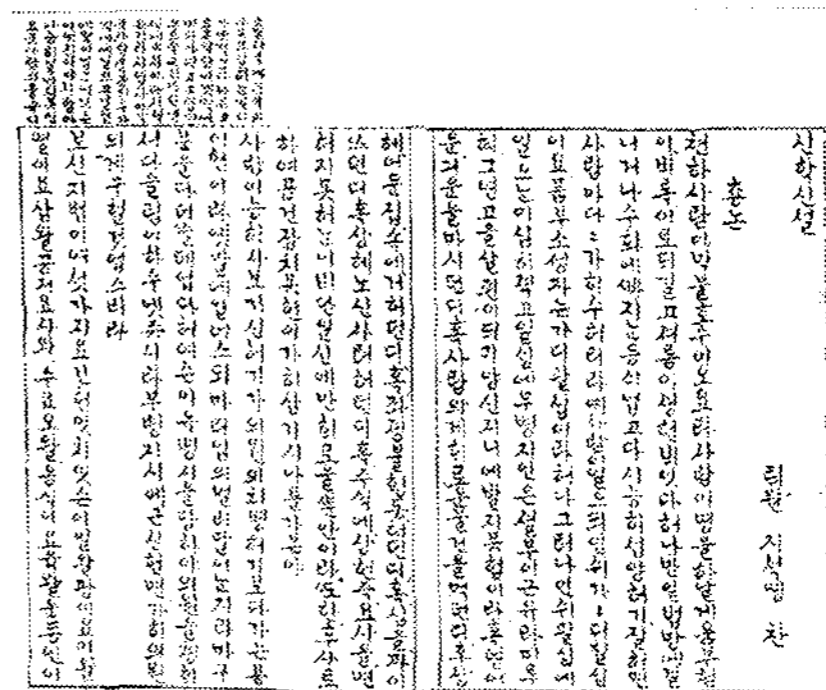
책을 쓴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생서를 쓰려고 마음먹고 “구라 파주의 책을 얻어 보니 그 의논이 가깝고 쉬우며 그 이치가 맑고 밝아서” “표준으로 삼겠도다”고 생각되어 “모든 글을 모아 깊이 생각하여 찾기를 업치락 뒤치락 한 지 여러 달



[그림 2] 『신학신설』 표지

3) 신동원, 「김옥균의 치도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학회지』 1-1, 1990; 우동선, 「도시와 건축에 관한 박영효의 생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7, 2001; 전봉덕,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8, 1978 등이 있다.

만에 그 간략하고 요긴한 것”을 얻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⁴⁾ 먼저 서양의 의학서, 위생서, 양생서를 여러 권 입수하여 읽은 후 이를 토대로 『신학신설』을 쓴 것이다. 따라서 유길준과 박영효의 저술이 일본이나 서양의 주거환경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받은 인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주거론에 대한 체계적 저술이 아니라면, 이 책은 서양의 위생관련 서적들을 섭렵한 후 쓴 개인위생서인 만큼 주거관련 내용 역시 좀 더 본격적이다.⁵⁾



[그림 3] 『신학신설』 본문

책은 ‘서(序), 총론, 광(빛), 열, 공기, 지구(地氣), 물, 음식, 운동, 보영(保嬰: 아이 기르는 법)’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광(빛),’ ‘공기,’ ‘지구(地氣)’ 항목에서 주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제는 일조(채광), 통풍(환기), 주거지의 조건이다. 다음 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주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다.

3. 주거관련 내용

3.1 일조와 채광

주거의 일조(日照)와 채광(採光)에 관한 내용이 ‘광(빛)’ 항목에서 나온다.⁶⁾ 먼저 도입부에서 일조가 건강에

4) 지석영, 『신학신설』, 필사본, 1891 (이용한 자료는 대한의사학회, 『송촌 지식영』, 아카데미나, 1994, 193-194면. 이하 동일).

5) 신동원, 『한국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03-105면.

6) 일조와 채광을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일조’가 태양빛이 비추는 것이라면 ‘채광’은 태양빛을 받아들여 실내 등을 밝게 하는 것이다. 한말 주거담론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일조는 태양빛을 통해 실내온도를 높이거나 신체나 가구 등을 소독하는 것을 말할 때, 채광은 태양빛이 실내 조도를 높이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광(光),’ ‘일광(日光)’도 일조, 채광과 함께 사용되었다.

필수적이라고 한 후, 시골 농부는 건강하지만 도시 부자는 허약하고 일찍 죽는데 그 이유가 “능히 일광을 만이 보지 못하고 말근 괴운을 만이 었다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니 “맛당이 창호을 기통허야 일광으로써 방중에 비취여 더리라”고 하였다.⁷⁾ 개인위생에 실내채광이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실내채광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방옥지동서에 맛당이 창호을 너여 상오와 호오에 다 일광이 잇서 쏘여드러오게 허고 방너에서 무삼 이을 허던디 맛당이 광을 향허고 가히 광을 등지지 말거시오, 창밖게 담과 다못 수목지농음이 창호로 드러오는 광을 가리는 것 잇거든 다 반다시 업시 호고 만일 염천상 오지시에 일광이 티롱허거든 빅죽염을 거는 거시 모헌니라. (중략) ①침실 -심썸 호여곰 조강허고 정결케 흘 거시오 추허고 습헌 거슨 절곡하느니 티져 사람의 거처가 누방이 가장 맛당헌이라. 예도 맛당이 식벽광으로 호여곰 비취여 드러오게 할 거시오. (중략) ②어린아히 기루는 집을 모름즉이 광이 가장 만은 고슬 같히여 어들 거슨 어린아히의 광을 엇소자힘이 어른보다가 다시 심힘을 인힘이니 만일 어두운 집 속에 거허면 점점 호여곰 그 죽게 호는 법이라. (중략) ③병자를 절불가와어암실지중이라. 만일 의지 일광이 티과타 호야 병자의 뇌을 상혈가 염여허거던 맛당이 광을 피혈 거시오.⁸⁾ (번호는 인용자, 이하 같음)

우선 주택의 동쪽과 서쪽에 모두 창호를 내어 오전과 오후에 실내채광이 되도록 할 것, 창밖의 담과 수목이 창호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할 것, 여름 한낮에 강한 광선은 차단할 것 등 3가지에 주의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주택의 3실에 대해 다루었는데, ①침실은 건조하도록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새벽부터 햇빛이 들게 할 것, ②아동실을 특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둘 것, ③병실을 어둡지 않게 할 것 등이다.

3.2 통풍과 환기

주거의 통풍과 환기에 관한 내용은 ‘공괴(공기)’ 항목에서 다루어진다.⁹⁾ 먼저 서양에서는 사람의 호흡량을 토

대로 침실의 넓이와 높이를 결정한다고 소개한 후¹⁰⁾ 실을 적당한 규모로 하기 어렵다면 실내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통풍과 환기가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방 안에 화로를 두고 창호를 닫아 찬 바람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바람이 통하지 않는 작은 방에 있는 것은 죄인처럼 갇히는 것과 같으며, 여러 사람이 방안에 일하면 어린이, 병자, 여인들에게 어지럼증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¹¹⁾ 통풍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화로를 피우거나 그 실이 좁거나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해롭다고 하면서 실내 통풍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택에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무릇 방옥에 간간이 높흔 고데 반다시 두 큰 궁글 두면 호 궁그로는 괴운을 드리고 -동허는 문썸을 안으로 다는 이라. 호 궁그로는 괴운을 방출 -동허는 문썸을 박그로 다는이라. 허는이 이 법이 비록 조흐나 오히려 호 창을 여든지 호 호 문을 여려서 통창헌데 밋지 못허는이라. ②사람이 통풍허는 잇치을 아는 이 잇스나 그러나 통풍허는 창호가 심히 적으미 들어오는 바 바람이 자못 첩초 -쌀쌀허고 차단마리라. 외풍이 드러올 썸 틈이 조불수록 더욱 쌀쌀헌이라. 하야 사람의 몸에 심히 맛당치 못헌고로 고치여 다시 적은 창호도 허고 호 전연이 봉허기도 현이 창호을 크게 너면 응당 이 폐단 업쓸 줄을 아지 못힘이라.¹²⁾

집 높은 곳에 큰 창을 두 개 내고 한 쪽 문썸은 안쪽으로 열리게 해서 바깥 공기를 받고 다른 쪽 문썸은 밖으로 열리게 해서 안쪽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이 좋고(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창과 문을 함께 열어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통풍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있지만 창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바람이 오히려 세차고 쌀쌀해지는 이치를 잘 몰라서 더 작게 하거나 아예 봉해버린다면 창호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②)고

7) 지석영, 앞의 책, 249면.

8) 같은 책, 250-251면.

9) ‘통풍’이 바람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이라면 ‘환기’는 탁한 공기를 빼고 새 공기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한말 주거담론에서 ‘통풍(通風)’과 ‘환기(換氣)’도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당시 ‘통풍’은 실내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환기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0) 지석영, 앞의 책, 262-263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호흡하는 공기량이 3,999입방척이고 이를 방의 용적으로 환산하면 길이 25척, 폭 25척, 높이 20척이 된다고 했다. 또 잠자는 4시간 동안 호흡하는 공기는 1,000입방척이고 이를 방의 용적으로 환산하면 길이, 폭, 높이 각각 10척이 되므로 서양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침실 크기를 정한다고 하였다.

11) 같은 책, 262-263면.

12) 같은 책, 263면.

하였다. ①은 창호 내는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실내환기의 효율성을 고려한 내용이고 ②는 창호를 크게 내는 것이 환기에 유리함을 설명한 것이다.

이어서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주거관리요령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 ① 밤에 방옥 창호을 다시 맛당이 닳지 안이힐 거시라. (중략) ②창을 열어 바람을 통허라. 두어 곳 가히 밤에 창을 여지 못힐 데 잇슨이 디면에 혹 독괴을 발허면 사람으로 하여곰 학질이 나기 쉬운즉 -학질 근원은 미양 헤진 물 괴어 절언 집히 벗헤 씨고 비에 써서 썩고 습한 독괴가 바람에 붓쳐 사람의게 전염허는 이, 이럼으로 가을 거들 띠에 이 병이 가장 만코 밤에 더욱 밧기가 쉬운이라. 날 어둔 후로부터 날 밧기에 일으도록 가히 박갓 공괴을 만이 흡힐 것 안이라. (중략) ③은구와 측간과 초빈 갓튼 곳에 다 독괴을 발허는 이, 만일 면록 -석회을 물에 되게 탄 거시라- 등물을 쓰면 능히 잠간 그 히을 면허나 근본인즉 제허지 못허는 이 소이로 집안에 반다시 은구을 닳여 물노써 쏠어 써서 그 독괴을 흘니고 또 각종 덜어운 물건은 운전허야 먼 곳데 버리라. ④방옥을 소쇄허야 날노 부즐언이 정결케 허고 아울러 일용허는 물건을 다 써서 정케 허면 능히 각종 발열허는 병과 빗 별종 온역 병을 면허는 이라. 하란국 갓튼데는 디괴가 틈서 각국 중에 가장 나즌나 그러나 하란 사람이 상헤 방옥과 다뭇 각종 물건을 써서서 정케 험으로 질병을 면허는 이라. 무릇 집 속에 너외 판벽을 다 석회물노써 써스면 능히 일체 독괴을 훗드는 이라.¹³⁾

이때까지 전염병의 원인으로 세균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대신 어둡고 습기 찬 곳에 있는 기운, 변소나 죽은 짐승, 식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기운, 혹은 이산화탄소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사람의 호흡에 의한 기운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대기 중의 독소, 瘴氣(miasma)가 병의 원인이라는 ‘장기설(瘴氣說)’이다. 앞의 인용글은 이 장기설에 기초하여 ①폐쇄된 방의 공기, ②습기 있는 주거지의 공기, ③하수구나 변소에서 나는 냄새, ④방의 더러운 물건 등에서 나오는 독기를 없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창호를 개방하여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습기가 많은 주거지일 경우 밤에 외부 공기를 실내를 들이지는 말고, ‘은구’(하수구)와 변소의 독기를 없애도록 하수구를 소통하고 분뇨를 멀리 버리며 청소를 통해 실내청결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13) 같은 책, 263-265면.

3.3 주거지의 조건

마지막으로 주거지의 조건에 대해 ‘디괴’ 즉, 地氣 항목에서 다룬다. 지석영은 “디괴라 허는 말은 아무 곳시던 디 심상이 어든 바 공괴을 일음이니 무릇 싸우히 잇는 바 냉열조습과 아울러 일체 공괴로 더부러 상관되는 일을 다 일으되 디괴라”¹⁴⁾고 하여, 땅 위의 냉열조습을 포함한 일체 공기와 상관된 것을 모두 ‘디괴’라 정의하였다. 즉, 지기란 기후, 토질, 지형에 따른 공기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지기의 개념을 빌어 주거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바람직한 주거지의 일반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비습헌 썩에 사람이 맛당이 거헬 것 안이요 높고 조헌 곳세 거험이 합당헌이, 높고 조헌 곳세는 부란질 -썩고 물커진 물건이란 마리라- 을 머금은 물이 업고, 각종 독괴가 다 디면에 잇서서 능히 우희로 올으지 못허고, 상헤 바람이 잇서서 공괴로 하여곰 조화허고, 수목 등물[이: 인용자 주] 일광 가리는 것시 업고, 공괴의 늘른는 심이 다시 적음의 일을 인하여 사람의 몸이 다시 편험을 썩달어 심중이 쾌락허고, 몸 속에 소화 등식이 다시 능히 심을 더나, 그러나 과히 높은 곳은 썩흔 맛당치 못헌이 공괴가 담박허고 다시 냉험을 인험이라.¹⁵⁾ (굵은 글씨는 인용자 강조)

먼저 “비습헌 썩에 사람이 맛당이 거헬 것 안이요 높고 조헌 곳세 거험이 합당헌이” 즉, 낮고 습기 찬 곳은 주거지로 좋지 않고 높고 건조한 곳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높고 건조한 곳에는 낮고 습기 찬 곳에 있는 썩고 물러진 것들이 없고, 지면의 각종 독기가 올라오지 않으며, 바람도 불기 쉬워 공기유통이 되고, 공기가 가벼워 몸이 편하고 마음이 쾌락하며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무 높은 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차가우니 주거지로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시골보다 도시가, 해변보다 내륙의 공기가 건조하지만 대도시의 공기는 시골보다 나쁘다고 한 후¹⁶⁾ 도시가 주거지로 부족한 이유와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14) 같은 책, 265-266면.

15) 같은 책, 266면.

16) 서양의 도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매년 사망률이 1,000명 중 20~22명의 비율로 높은 것은 공기가 맑지 못하기 때문이고, 도심지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아동 사망률이 시골의 갑절에 이르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병을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 그곳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책, 268-269면.

설명하였다.

무릇 사람 만이 사는 곳에 큰 골목 사이 적은 골목에 능히 바람과운을 만이 통치 못하여 사람이 병을 면치 못하고 덕성 지서에 말근 물을 엇기 얼엽고 곳 잇쓸 립도 쏘흔 녕너기 쓰지 못허는고로 더러운 물건을 씻지 못허는이 무릇 기구와 다뭇 충구(물로 은구을 씻단 마리라)가 다 성너에 요긴현 일이 되논이라. 만일 덕성 너에 능히 김흔 은구을 열고 거리와 골목을 너 글업게 허고 방옥이 험작허지 안으면 말근 괴운이 만코 덜업고 흘인 것시 적거서 시골 거헌 자로 더부러 약간 갓틀리라.¹⁷⁾

사람이 많이 사는 작은 골목에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병이 날 수 밖에 없고 맑은 물을 얻기 어려우며 물이 있더라도 넉넉히 쓰지 못해서 더러운 물건을 씻지 못한다고 하여, 도시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공기유통 부족과 음용수 불량에 질병의 원인이라는 설명하였다. 이어서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도시에 하수구를 깊이 파고 거리와 골목을 넓히며 집을 좁게 만들지 않으면 도시에 맑은 기운이 많아져 시골과 비슷한 환경이 되리라고 했다. 도시 주거지의 위생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구를 정비하고 골목의 폭과 집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지석영이 저술한 『신학신설』의 주거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광(빛)’ 향에서는 주거에 일조 및 채광이 잘 되도록 창호 및 외부수목 조건의 형성과 침실, 아동실, 병실의 채광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기’ 향에서는 통풍과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환기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호 위치를 정하고 창호를 크게 할 것을 지적한 후 장기설에 기초하여 주거환기를 잘 하고 청소나 하수도를 준설할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덕기(地氣)’ 향에서는 바람직한 주거지의 조건으로 역시 장기설에 기초하여 건조하고 높은 곳을 든 후 도시의 주거밀집지역은 공기유통이 잘 안되고 음용수가 불량하기 쉬우므로 하수구 정비, 도로 폭 확대, 주택규모의 확장 등을 통해 주거지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880년대 후반~1890년대 초 박영효, 유길준, 지석영 등을 통해 근대적 위생론이 도입되었고 주거위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지석영의 『신학신설』

은 주거위생 조건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일반인들에게 계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말 주거계몽담론의 선구적 저술이었다. 내용면에서도 개항 이후 근대적 위생론이 도입되면서 저술된 본격적인 개인위생서로서 주거위생에 중요한 환경조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빛, 공기, 물, 열 등 주거공간의 위생조건과 건조, 청결, 토질 등 주거지의 위생조건을 제시하고 위생적 측면에서 간단한 주거계획 및 관리요령까지 다루고 있다.

『신학신설』은 18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신문이나 잡지 및 학회지, 교과용도서 등의 매체를 통해 크게 확산된 주거위생담론의 기본적인 서술구조와 내용을 선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책은 지석영이 서양의 위생서들을 읽고 이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 그 시기는 1891년이다. 이 때문에 근대적 위생개념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당시의 개념들 즉, ‘지기,’ ‘양생,’ ‘장기설’ 등이 사용되어 주거 위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1890년대 중반 이후 주거위생론이 토질, 위생, 세균설 등과 같은 ‘근대적 과학’ 개념이나 지식의 토대 위에서 개진되었던 점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전 근대적 개념에 기초한 사고와 설명이다. 그러나 『신학신설』의 이런 성격 자체가 근대적 주거담론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참고문헌

- [1] 지석영, 신학신설, 필사본, 1891 (대한의사학회 편, 송촌 지석영, 아카데미아, 1994에 수록)
- [2] 기창덕, 조선시대말의 급만성전염병과 의료기관, 의학학 4-1, 1995
- [3] 김동욱, 한국후기 서울의 도시·건축, 서울학연구 1, 1994
- [4] 김명선, 韓末(1876~1910) 近代的 住居意識의 形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5] 김정동, 비전문지에서 찾아 본 ‘건축계몽론,’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2
- [6] 문재우, 19세기의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학회지 1, 1990
- [7] 박경룡, 개화기의 한성부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육백년사 3(1864~1910), 서울특별시, 1980
- [9]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84
- [10]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일지사, 1982
- [11] 신동원, 김옥균의 치도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의학회지 1, 1990

17) 같은 책, 269면.

사학회지 1-1, 1990

- [12] 신동원, 한국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3] 우동선, 도시와 건축에 관한 박영효의 생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7, 2001
- [14] 전봉덕,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8, 1978
- [15]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 [16] 허정, 우리나라 전염병의 보건사적 연구, 한국보건사학회지 2-1, 1992
- [17] 황태상, 개화기 건강과 위생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체육학회지 35-3, 1996

김 명 선(Myungsun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